타격왕 김태균이 '연봉 15억원 동결' 주저없이 사인…왜?

"팀 꼴찌에 책임감 삭감 각오까지 했다"

15억원. 김태균은 연봉협상테이블에서 구단이 마련한 동결안에 망설임 없이 사인했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액수인 만큼, 내년시즌 4강 진출의 포부를 밝히는 것도 잊지 않았다. 스포츠동아DB

"팀이 꼴찌면 다 같이 못한 겁니다"
즉시 사인…2년연속 연봉킹은 예약
"주장으로서 내년엔 꼭 4강 이끌 것"

"팀이 꼴찌면 다같이 못한 겁니다."

한화 김태균(30)이 내년 시즌에도 올해와 같은 연봉 15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한화는 17일 오후 대전구장 내 구단 사무실에서 김태균과 만나 2013시즌 계약을 체결했다. 양쪽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구단이 내민 '연봉 동결' 계약서에 선수는 주저하지 않고 사인했다. 왜였을까.

●2012년 김태균의 괴물본능

2년 만에 국내무대로 돌아온 김태균은 말 그대로 '괴물 모드'였다. 올 시즌 중후반까지 1982년 MBC 백인천(타율 0.412) 이후 처음 4할 타율에 도전할 정도로 최고의 타격감을 자랑했다. 비록 꿈의 4할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시즌 타율 0.363을 마크하며 2위 강정호(넥센·0.314)를 무려 5푼 가까운 차이로 누르고 타격 1위를 차지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양가도 높았다. 개인 성적이 아니라 팀 사정을 고려해 장타보다는 공을 맞히는 데 더 집중했고, 출루를 위해 볼넷을 한 개라도 더 골라 1루로 나가려고 노력한 결과였다. 시즌 종료 후 김태균의 연봉에 이목이 집중된 이유다.

●2년 연속 연봉킹은 예약

물론 김태균은 이미 한국프로야구 전체 '연봉킹'에 올라있다. 지난해 한화는 컴백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연봉 15억원'이라는 파격대우를 했고, 김태균은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연봉 10억원 돌파라는 신기록을 썼다. 이승엽(36)이 일본에서 삼성으로 돌아오면서 총 11억원(옵션 포함)에 사인했지만, 연봉 1위는 김태균의 차지였다.

이뿐만 아니다. 올 시즌의 활약도를 고려하면 연봉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화는 연봉 동결을 제시했고, 김태균도 구단의 제안을 담담히 수용했다.

●"삭감까지도 고려했다"

김태균은 연봉협상 직후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연봉) 삭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협상테이블에) 들어갔는데 구단에서 동결을 제시하더라. 특별한 얘기 없이 바로 사인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유가 있었다. 팀 성적에 대한 책임감이다. 그는 "팀이 꼴찌인데 무슨 염치로 말을 하겠나. 팀이 꼴찌면 다같이 못한 거다. 야구를 더 잘해서 우승하면 그때는 할 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하겠다. 또 내년 시즌 주장으로서 선수들과 함께 4강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4강 탈락 KIA…연봉 테이블은 훈훈

김선빈 63.6%·신인 박지훈은 무려 170%↑
"기여도 적용"…김상현·최희섭은 난항 예상

비록 4강에서 탈락했지만, 지금까지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따뜻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연봉을 받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몇몇 선수들의 경우 칼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IA는 17일 유격수 김선빈과 올해 1억1000만원보다 7000만원(63.6%) 오른 1억8000만원에 2013시즌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또 올해 연봉 2400만원을 받았던 신인 투수 박지훈은 무려 4100만원(170.8%) 인상된 6500만원에 계약했다. 박지훈은 KIA 팀 역사상 투·타를 포함해 2년차 최고 인상액(기존 4000만원·2010년 안치홍)과 최고 인상률(기존 150%·2004년 김진우)을 경신했다.

최근 올해보다 7000만원이 오른 1억1000만원에 계약해 9년 만에 1억원대 연봉에 재진입한 투수 김진우나 7500만원 오른 2억원에 사인한 2루수 안치홍 등 일찌감치 재계약에 성공한 주축 선수 상당수는 주변의 기대보다 인상폭이 컸다. 이는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성적에 바탕을 뒀던 KIA의 연봉 고과시스템에 팀 기여도를 처음 도입한 결과다. KIA 구단 관계자는 "연봉에 따른 팀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새롭게 시도했다. 혹 연봉이 깎인 선수들도 큰 잡음 없이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연봉이 대폭 인상된 이들과 달리, '기여도 적용'을 했을 때 몇몇 선수들은 연봉삭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구단의 설명이다. 김상현 최희섭 양현종 등 올해 예상 밖으로 부진했던 일부 선수들이 새 연봉 계약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선빈

박지훈

김도헌 기자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넥센 강정호 3억 쾅 '유격수 연봉 킹' 찜!

66.7% 인상…"후한 연봉 성적으로 보답"

내년 프로야구 '유격수 연봉 킹'이 새 얼굴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2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문 수상자인 넥센 강정호(25·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넥센은 17일 강정호와 올해 1억8000만원에서 66.7%(1억2000만원) 오른 3억원에 연봉 재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강정호는 올해 유격수로는 역대 2번째로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했고, 타격·장타율 각 2위와 홈런·출루율 각 3위에 오르며 전방위 활약을 펼쳤다. 124경기에서 타율 0.314에 25홈런 82타점 77득점 21도루. 넥센은 2010시즌 이후 2번째 황금장갑을 끼면서 팀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한 강정호의 가치를 몸값으로 화끈하게 인정했다.

이뿐만 아니다. 강정호는 데뷔 후 처음으로 9개 구단 유격수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올해 유격수 최고 연봉자(2억5000만원)인 SK 박진만을 이미 5000만원 추월했다. 아직 박진만의 내년 연봉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시 3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강정호는 골든글러브와 함께 올해 최고의 유격수로 공인받았다. 다른 구단 유격수들이 강정호의 3억원을 넘어서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강정호는 구단 사무실에서 계약을 마친 뒤 "곧바로 도장을 찍을 수 있게 후한 연봉을 제시해주신 구단에 감사하다. 매년 연봉이 올라가는 만큼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팀의 4강 진출을 이끌고 싶다"고 다짐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음준운전 징계 고원준, 연봉도 깎여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물의를 빚어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연쇄 징계를 받았던 롯데 투수 고원준(22)이 연봉삭감이란 또 다른 철퇴를 맞았다.

롯데는 17일 올 시즌 1억1000만원을 받았던 고원준과 2000만원 삭감된 9000만원에 2013년 연봉 재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고원준은 올 시즌 19경기에 등판해 3승7패, 방어율 4.25를 마크했다. 이달 초 심야음주교통사고로 구단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장학금 후원 5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제재금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지시받았고, KBO로부터는 제재금 500만원과 유소년야구 56시간 봉사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롯데 외야수 전준우는 올해 1억3000만원에서 2000만원 오른 1억5000만원에 연봉협상을 매듭지었고, 투수 진명호는 1200만원 오른 5000만원에 사인했다. 반면 투수 이재곤은 1000만원 깎인 53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롯데, 새 용병 리치몬드와 총 30만달러에 계약

롯데는 17일 새외국인투수 스캇 리치몬드(33)와 계약금 10만달러, 연봉 20만달러 등 총 3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출신 우완 정통파 리치몬드는 198cm의 큰 키에서 던지는 타점 높은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자랑한다.